



출판사 대표에서 프로 전시기획자로,  
 “출판사, 출판 행위에만 그쳐선 안돼”

‘톨스토이展’ 연 출판사 인디북 대표 손상목

서울역사박물관에서 전시중인 ‘톨스토이展’이 화제가 되고 있다. 세계 최초로 공개되는 친필원고, 지인과 주고받은 서신과 선물, 화가 일리아 레핀이 그린 초상화 등 러시아 국보급 유물 600여 점을 대거 공개, 관람객들로부터 호평을 받고 있다. ‘톨스토이展’을 기획, 진행한 이는 출판사 인디북 손상목(41) 대표다. 《톨스토이 단편선》, 《톨스토이와 동양》, ‘톨스토이 전집’을 부지런히 출간하며 톨스토이와의 긴밀

한 애정을 과시하더니, 손 대표는 기어코 멋진 축제를 벌여 놓았다.

● 우리가 아는 톨스토이, ‘빙산의 일각 불과’  
 “인디북의 《톨스토이 단편선》이 TV 프로그램 <느낌표> 선정도서로 채택돼 분  
 에 넘치는 사랑을 받았습니다. 선정도서  
 가운데 가장 흥런하는 책이기도 하지요.  
 독자들에게 보답하고 싶어 톨스토이 유품  
 전을 생각했는데, 전시준비차 찾아간 러시

아에서 충격을 받았습니다. 톨스토이에 대  
 해 우리가 알고 있는 부분은 빙산의 일각  
 이었던 거죠.”

《전쟁과 평화》, 《부활》 등의 작품을  
 통해 얻은 대문호란 이름만으로 톨스토이  
 를 평가해서는 안 된다. 대문호 이전 교육  
 가로, 사상가로, 인간으로 더 많은 매력을  
 지닌 이가 톨스토이다. 손 대표는 기획했  
 던 유품전을 확대해 톨스토이의 전 생애를  
 담아보겠다고 재차 결심했다. 전시의 아우

트라이를 구상한 손 대표는 전시기획팀을 꾸려 러시아를 방문, 톨스토이의 손때 묻은 유물을 부지런히 입수했다. 톨스토이에 관한 애정과 독특한 전시기획을 흠족해한 러시아 박물관측은 손 대표가 빠뜨린 가치 있는 유품들을 안내해 주었으며, 급기야 세계 어디에도 내놓지 않던 톨스토이 친필 원고를 기꺼이 건넸다.

“톨스토이에 관한 더없는 전시자료를 갖추어 흠족했지만, 사실 불안하기도 했습니다. 일개 출판사가 감당하기에 20억 원이란 전시경비는 너무 큰 것이었지요. 활발하리라 생각했던 기업들의 협찬은 기대 이하였습니다. 전시가 공연보다 메리트가 떨어진다 생각했는지 선뜻 협찬에 나서지 않더군요. 국가적 행사로 확대된 만큼 전시를 제대로 해보고 싶었습니다. 한편 문화산업의 핵을 만들어내는 출판사가 할 일이 출판만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고도 싶었지요.”

- 전시장 하루 천여 명 관람, 예기치 않은 ‘대박’  
작년 12월 10일 전시 오픈을 한 ‘톨스토이展’은 대박이 났다. 전시장은 하루

다. 러시아 셰프킨 연극대학과 슈킨 연극대학에서 유학한 텔런트 박신양 씨도 홍보 대사로 나서 현재 힘을 보태고 있다.

“수익은 기대하지 않았는데 손익분기점은 거뜬히 넘길 것 같습니다. 이번 전시의 실제 이익은 40억원 이상이라고 봅니다. 출판사 인디북의 브랜드 이미지를 높이기도 했거니와 저 자신의 만족도까지 더한 계산입니다. 전시를 관람한 러시아 관계자들이 전시를 그대로 옮겨 해외로 나가 보라고 말을 합니다. 해외에서도 통할 만한 기획이라는 칭찬이지요. 많은 출판사들이 출판사업 다각화에 적극적으로 움직였으면 합니다. 괴테 책을 내는 출판사들이 함께 나서서 괴테 축제를 벌일 수도 있고, 책과 연계한 드라마, 영화 축제도 벌일 수 있는 것이지요.”

‘세계의 많은 지성 가운데 왜 톨스토이인가’라는 물음에 손 대표는 “톨스토이 만큼 자신의 철학을 온몸으로 살아낸 이도 없기 때문”이라고 대답한다. 톨스토이는 서구의 철학에 앞서 동양사상에 심취했는데, 노자의 《도덕경》은 톨스토이가 가장 깊은

노력하는 출판인이다. 백 년은 갈 수 있는 출판사를 만드는 것, 세계인이 읽는 책을 만들겠다는 것이 손 대표의 바람이다. 현재 인디북이 심혈을 기울여 제작하고 있는 책은 《민족문화대백과사전》이다. 한국정신문화연구원의 최고 필진들과 손잡고 작업을 진행 중이다.

“지식은 인터넷 등 책 아닌 것들에서도 얻을 수 있지만 지혜는 책을 통해서만 배울 수 있습니다. 시장성을 염려하지만 이 역시 승산이 있다고 믿습니다. 한국문화에 대해 연구하는 기관이 많기도 하지만, 무엇보다 그 자체로 의미 있는 작업이 아니겠습니까? 한글판은 완성이 되어 있고, 현재 영문판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인디북이 그동안 외국문학의 정수를 알리는데 주력했는데, 우리 문학과 아동책 등으로 범위를 넓혀 종합출판사의 면모를 갖추고 싶습니다.”

손 대표는 없는 시간을 쪼개서라도 하루 한 번 전시장을 들른다. 관람객을 오가며 톨스토이 삶의 매력을 전하는가 하면, 그들의 모니터링에도 성실히 귀를 기



1,000여 명의 관람객들로 문전성시를 이루었으며, 전시 일정의 절반을 소화한 지금에도 500~600여 명의 사람들이 전시장을 찾고 있다. 자체 홍보도 성공적인 전시를 이끌었지만, 무엇보다 관람객들의 입소문이 영향력을 발휘했다. 손 대표는 성과에 만족하지 않고, 음악연극 〈바보 이반〉, ‘톨스토이 학교 교육프로그램’, ‘러시아 영화제’ 등의 부대행사를 업그레이드시켜 진행하며 관람객의 시간을 더욱 유익하게 했

영향을 받은 책 중의 하나이다. 노자 무위론은 생의 중심축이 되어 톨스토이를 건인했으며, 〈바보 이반〉과 〈사람에게 얼마의 땅이 필요한가〉 등의 작품 속에는 무위론 사상이 숨어 있다고 손 대표는 들려준다.

- ‘출판사업 다각화와  
진정성 갖든 출판에 헌신할 터’  
손 대표는 출판사업 다각화에도 전념을 보였지만, 출판에도 진정성을 잃지 않으려

울인다. 성공적인 이번 전시에 이은 후속 이벤트가 있느냐는 질문에, 손 대표는 “큰 프로젝트를 하나 구상하고 있다”고만 대답했다. 구체적인 내용은 기밀사항이라며 보안을 강조하는 출판인 손 대표는 그렇듯 프로 전시기획자로서도 부족함 없는 면모를 갖추고 있다. [4]

취재 | 박용두 기자 · 사진 | 박신우 기자